



서점가
이색 굿즈로
독자 발길 잡는다
L1



Life

식품업계
쌀 품질·풍미 강조
'프리미엄' 선배
L2



metro · metro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시| 7월 17일(수)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밸류업 전략으로 투자 '레벨업'... 촘촘한 자산안전망 만들기

개미들, 국내장 부진에 미국장으로 저성장 속 새로운 재테크 전략 제시 부동산·미국주식 등 안전투자 조언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시장 전망도

개미들의 국내증시 엑소더스(대규모 이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동력으로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며 지지부진한 국내 시장을 떠나 '주식 이민'을 택한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 3935억원 팔아 치웠다.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이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 잔액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의 이탈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지쳐버린 영향이 컸다. 지난 2023년 한해 코스피 지수는 33.70% 추락하며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5% 오르는 사이 코스피 지수는 7.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한국 증시의 오랜 지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증시를 부양하고, 등 돌린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합계출산율이 0.72에 그치는 초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겹치며 한국의 미래가 나아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메트로신문 & 메트로경제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를 열고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안전망이 되어줄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이 맡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시장 전망과 가치투자의 시대에 주목할 투자법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00	기조강연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15:00~15:40	강연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미국주식 투자전략

제시한다.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부동산 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을 주제로 100세 시대 안전망이 되어 줄 부동산을 짚어준다.

마지막으로 김세환 KB증권 리서치

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은 '미국주식 투자전략'을 주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은 '2024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두고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외국인 순매수세는 최대 규모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3분기에 밸류업 관련 지수를 발표, 4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연기금 자금을 집행할 예정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내다본다. 세법과 상법 어느 방향이든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상법 개정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배당성향의 극적인 전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주권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주주권 제한과 균형이 존재하는 영미 주식시장과는 달리 한국은 상속과정에 지분이 분산됐지만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언이다.

- 현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
-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 전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한국의 적립기금은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인출)적립+수익'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김 고문은 "사적연금은 스스로 인출을 실행해야 한다"며 "인출기에 ▲구매력 리스크 ▲장수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등을 겪게 된다"고 언급한다. 김 고문은 이번 포럼에서 3가지 리스크를 알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한다. 김 고문은 은퇴 후 초기 10년 수익률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10년 수익률이 은퇴 후 30년 동안의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5세~74세를 '고령 전기'로, 75세 이상을 '고령 후기'로 볼 때, 전기에는 유동자금이 필요하고 후기에는 장수 대비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김 고문은 각국의 '인출 방식'을 예로 들며 '인출 상품군'의 배분을 통한 '인출 전략'에 대해서도 제언할 예정이다.

- 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전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구 은퇴연구소) 대표
-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부동산 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한 뒤 주택시장 매매가격, 거래량 등 현황을 진단해 향후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동남권역의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 주요 입주예정 단지 등을 분석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언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해 구간별 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 박사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거래량 레벨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지역에도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은 '미국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최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산업 전반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주식을 팔고 미국증시로 떠나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 3935억원 팔아 치웠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 잔액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을 이끄는 국가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김 팀장은 주주수익률이 높고 장기 이익 성장성이 반영된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AI 산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강인, 김민재 친정 나폴리행 가능성 거론 "트레이드 고려" /사진 뉴시스
- ▲'학폭 논란' 이재영 은퇴 암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 ▲오타니 "2028년 LA 올림픽, 당연히 출전하고 싶어"... MLB 마음 바꿀까
- ▲두 번째 올림픽 나서는 수영 황선우 "경험 쌓여... 후회 없어"



- ▲울버햄튼 황희찬, 프리시즌 경기 도중 인종차별 당해 /사진 뉴시스
- ▲이승우·린가드, 토트넘과 붙는다... 팀 K리그 '팬 일레븐' 명단 발표